

1226(월) 요한계시록 4-7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

요한은 이 세상의 현실과 잇닿아 있는 하늘의 영역
곧, 참 왕이신 하나님의 알현실(throne room)로 초대됩니다.
앗수르의 세가 한창이던 때에 이사야가 하늘보좌를 보았듯,
요한도 로마제국의 권세가 막강하던 때, 하늘 보좌를 봅니다.
이 땅의 나라와 권세들은 참이 아니며, 영원하지 않습니다.
그저 하늘 보좌의 모조품에 불과할 뿐입니다(4장).

모든 권세와 능력이 참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.
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,
일곱 두루마리(6-8장), 일곱 나팔(8-11장), 일곱 대접(16-18장) 등
세상에 펼쳐질 여러 일들의 계획과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.
오직 주님만이 예배와 경배 받기에 합당하십니다(4:6-5장).

통치자 하나님의 손에 일곱 두루마리가 들렸습니다.
이 세상을 위해 준비하신 큰 프로젝트들이 담겼습니다.
봉인이 열리면 심판과 구원의 대서사시가 펼쳐질 것입니다.
이 봉인을 열 자격을 갖춘 분은 예수님뿐입니다(5:2,5).

봉인이 열릴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갑니다(6장).
정복과 폭력, 경제적 재난과 죽음 등이 <혼재>하는 가운데
최악의 일들이 일어나며 악이 최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.
밑바닥에 가라앉았던 악까지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.
죄악이 무르익어 때가 차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.
(6:10-11, 창15:16 참고)

죄로 인해 오염된 땅/바다/나무까지 정화될 것입니다(7:3).
연단을 통해 모든 것이 정화되고 정제되는 고난의 때에도
주님은 백성들과 함께하시며 지키고 감추실 것입니다(7:15-17).
보혈을 의지하여 고난을 견디고 순결을 지킨 14만 4천명은*
흰옷을 입고 구원과 승리의 함성을 부를 것입니다(7:9-10).

* 7장, 12X12X1000,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온전한 주의 백성

나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합니까?

- ① 사람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까?
- ②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?